

종합

신안 땅값 전국서 가장 많이 올랐다

연륙교 건설 등 영향 올들어 3.5% 상승

광주·전남도 으뜸세... 서울만 하락세

신안지역 땅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 땅값 변동률은 0.299%로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지역도 각각 0.03%와 0.09%가 올랐다. 반면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19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신안군은 5월보다 0.299% 올랐다. 지난해 5월 0.009%로 상승 반전한 이후 땅값 상승세가 14개월째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만 3.5% 상승했다. 신안군의 땅값 상승은 압해면과 증도면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압해면은

연륙교 건설로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신안군청사도 들어서게 돼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 2조5600여 역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 중인 신안조선타운의 개발 효과도 더해졌다. 신안군은 압해면 가룡리 일대 1만3879㎡ 부지에 조선타운을 조성해 선박제조 및 기자재 업종,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압해면의 평균 땅값은 지난 2005년 전년 대비 31% 오른데 이어 2006년 58.7%, 2007년 9.5%, 2008년 9.9%, 2009년 1.7%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 4% 올랐다.

엘도라도리조트가 있는 증도면도 연륙교 완공을 앞두고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 올 들어서 12% 상승했다. 광주와 전남지역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6월 땅값 변동률이 0.03%로 지난 2009년 6월 이후 13개월째 올랐다. 하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 0.25%에서 올해 1월 0.11%, 2·3월 0.08%, 4·5월 0.05%로 6개월째 둔화했다. 전남도 0.09%로 지난 2009년 5월 이후 14개월째 상승했다. 토지거래량은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달 3770필지에 72만㎡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4177필지, 98만㎡)보다 필지수 0.7%, 면적 26.5% 각각 감소했다. 전남은 1만2251필지에 2226만㎡로 거래면적이 31%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땅값 변동률은 5월

대비 평균 0.05% 올랐다. 서울이 0.03% 내렸고 인천은 0.06%, 경기도는 0.09%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03%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방은 평균 0.07% 올랐다. 서울 땅값이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3월(-0.03%) 이후 처음이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지역 0.12%, 관리지역 0.11%이고, 지목별로는 논 0.13%, 밭 0.12%로 조사됐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총 18만3345필지, 1억9507만6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는 14.7%, 면적은 20.1%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6월 평균 거래량(23만필지)과 비교해 20.3% 낮은 수준으로, 주택에 이어 토지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성경제인협회 창립 기념식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이 19일 광주시 서구 리마디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강운태 광주시장, 윤명희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들여다 보기

“정책기획부터 시민 참여 시켜라”

“문화진흥지구 노래만 부르다 끝나겠다 속도 내라”
“재정·사무권 지방이전 중앙정부에 건의 하겠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조만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자치권의 확보’를 중점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치의 본질은 재정권과 사무권”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 : 21,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 27로, 대부분이 대통령에게 귀속돼 있어 2할 자치, 3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타 지자체와 연대해 재정권과 사무권이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공기업 및 출자·출

연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공직자들의 시정 아이디어 공모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한 기획관리실에 대해 “모든 정책의 계획 단계부터 수요자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기업 관련 소위에도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자치행정국은 매주 금요일 시행 중인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지금까지 29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이 이미 해결됐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3~4곳을 선정, 추진단과 논의하면서 사업을 진전시킬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노래부르다가 끝나겠다”며 업무처리속도를 높여주길 주문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중한 기회”라며 “(민원처리)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했다면, 굳이 시장까지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국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나 산책길 조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런 사업일수록 수요자 조사를 통해 추진해야하며, 학교 학부모회장,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보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수정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선 “광주시도시공사 사장, 건설국장, 건축국장, 문화정책실장 등이 협의해 구 도청을 중심으로 3~4곳을 선정, 추진단과 논의하면서 사업을 진전시킬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노래부르다가 끝나겠다”며 업무처리속도를 높여주길 주문했다. /홍행기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섬진강살리기 구간 폐기물 12만t

처리비용 53억

영산강 및 섬진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이 12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19일 영산강을 비롯, 전국의 사업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이 2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영산강의 경우 10만3718t의 폐기물이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페콘크리트(6만3202t)가 가장 많고 페아스콘(1만5080t), 혼합페

기물(1만6826t), 입목폐기물(2562t), 건설 폐자재류(6048t) 등으로 조사됐다. 섬진강은 페콘크리트(1만4349t), 페아스콘(345t), 혼합폐기물(265t), 입목폐기물(1437t), 영농폐기물(17t) 등이 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영산강(45억3940만원), 섬진강(8억원) 등 모두 53억 394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4대강 살리기 구간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670억원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치초밥 광주 대표음식 만든다

10월 경연대회 개최

김치를 주재료로 한 김치 초밥 경연대회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올해 17회째인 세계김치문화축제 기간(10월23일부터 27일까지)에 김치 초밥왕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치 초밥은 보통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생선회 초밥과는 달리,

담근 김치 또는 햇벌에 말린 김치를 주재료로 만든 것으로 일부 시장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김치 초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요리사가 20여명에 이르며, 일부 대학 교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앞으로 김치초밥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 김치 초밥을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빛日만평

- 김중두

시작이 이 정도니 올여름 알만하다

‘휴가 특수’ 1면서 계속

또 여행사와 연계, 24개 남도명품 여름 여행상품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문화·슬로시티·체험·섬·남도별미·남도그린투어·F1경주장관람 등 7개 분야 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제 공하며 구애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통·숙박난 여전=반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숙박·환경 등 소프트웨어 측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숙박은 체류형 관광 상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절대 부족한데다, 서비스도 열악해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는 버거운 게 현실이다. 청산도의 경우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여저저 단체 관광객

들을 위한 고급 펜션이 하나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오죽했으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제부터 하라고 했는데, 해놓은 게 없다”며 질타했을 정도다. 이뿐만 아니다. 전남도가 지난 2004년 이후 호텔·리조트 등 건립을 위해 모두 24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현재 실현된 것은 2곳이 고작이다. 섬 관광도 비슷하다. 전남도가 민간투자를 진행했던 17개 섬 가운데 관광객이 머물 고급 숙박시설이 건립된 지역은 한 곳뿐이다. 그나마 일부 섬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통·숙박 대책과 연계하지 못해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무안~김포간 아시아나 국내선 운항과 부산~목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도 악재다.

광주시 소방차 진입 불가 37곳 특별관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37곳에 대한 특별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 진입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초기 대응

요원으로 지정, 소방차 출동 전까지 주민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역별로 소방사와의 거리 및 활동 시간, 소방용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맞춤형 현장활동 매뉴얼을 작성해 월 1회 이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판결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고경 206 회거불응
피 고 인 : 박 인 숙
위 피고인은 회거불응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고 상 명

분할합병공고

2010년 7월 19일 2차 주주총회의 결의로, 구광이앤씨 주식회사(이하“갑”)의 전가정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주식회사 사천 (이하“을”)이 분할합병(“갑”)의 전가정사업부분의 관리와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자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일로부터 1개월 내로 관제회사에 이의제 제출하여 주지감리에게, 주주제외계시도 등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지감리에게 합니다.
2010. 7. 20.
갑 : 구광이앤씨 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광복로권면 5-17
대표이사 이 수 경
을 : 주식회사 사천
경충군 대덕읍 신월면 189-11
대표이사 박 용 진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10년 4월 2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주식회사 김앤김
광주 서구 내방동 833-45번지
최한인 김수정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당후 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문의 전화 011) 607-5629

현대공인중개사

토 지 매 매

- ▶ 광산구 수현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
- ▶ 매월동 준 공업지역
● 굴포언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 광송 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개발공사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 센터, 사육작업
- ▶ 마북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형실 뒤쪽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 매매가 7억 8천만원
-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 산수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 1층상가 2층, 3층, 4층, 유휴, 투룸, 매매가 7억8천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성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 대출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장 창고 건물 매매

- 광산구 우신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 매도가 7억 8천만원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판결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고경 60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 정 강 연
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7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안 상 명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델타이저서비스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용주(“을”)는 2010년 7월 19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정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하며, 심판 제 530조의 9 제 2항의 전의결사항을 합의하여 이의 제주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10년 7월 20일
“갑”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조북읍 신월면 465-44
회 사 명 : 델타이저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 승 욱
“을” 주 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434-1
회 사 명 : 주식회사 용주
대표이사 : 박노수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판결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고경 86 상해
피 고 인 : 정 미 숙
위 피고인은 상해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7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안 상 명

합 병 공 고

(재건자이와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21세기 엔지니어링(이하 “갑”)은 2010년 07월 19일 주주총회의결에 의해 주식회사 금정엔지니어링(이하 “을”)은 동년 동월 19일 주주총회의결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의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각 주주총회의결에서 합병계책사항을 승인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10년 7월 20일
〈갑〉주식회사 21세기 엔지니어링
전남 나주시 산정동 8-8
대표이사 정 영 서 · 대표이사 민 현 보
〈을〉주식회사 금정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2-55 건철빌딩 8층
대표이사 정 상 훈